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가능성 재확인

대한민국드론박람회서 '국제드론축구제전' 역대 최대 21국 162개팀 참여해 성황리 개최

역대 최대 규모가 참가한 국제 드론 축구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면서 드론축구의 종주도시 전주에서 열린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과 드론축구의 세계화 가속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드론박람회에서 2024 코리아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식,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운영에 관련자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내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위한 프레 월드컵(Pre World Cup)으로 열린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 인도, 베트남 등 세계 21개국 162개팀 1,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드론축구의 전세계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우반기 전주시장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홍보관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역대 최대 규모가 참가한 국제 드론축구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면서 드론축구의 종주도시 전주에서 열린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과 드론축구의 세계화 가속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제2차관, 해외대사, 공공기관장 등 주요 인사에게 드론축구의 우수성, 드론축구 해외보급 현황, 2024 CES 참가 성과,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드론축구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와 팀이 참여하며 해외 선수들이 급증한 것은 전주시와 캠틡종합기술원이 힘을 쏟은 글로벌 홍보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1월 글로벌 혁신 박람회

로 주목받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2024에 출품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선포하며 CNN, BBC, 로이터, AFP 등 글로벌 미디어 80여 곳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드론축구의 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전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개막 첫날인 9일에는 드론축구가 메이저 스포츠로 향하는 첫걸음인 2024 코리아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식도 진행됐다.

리그는 팬텀·엔젤·선더·사크·그리핀·스타즈·캘린저·피닉스 등 8개 팀으로 운영되며 이번 송도 국제드론축구제전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총 280차례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집해 창단을 이끄는 등 규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드론축구는 국내 2,500여개 팀이 활동 중이며 해외 19개국에서 드론축구협회를 설립해 드론축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올해 신규 임용된 직원 2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신규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신규직원 인권교육 실시

27명 대상 조직문화 적응·관계 형성 위해 마련

전주시가 인권 교육을 통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신규 직원들의 적응을 도왔다.

시는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올해 신규 임용된 직원 2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신규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적응과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특강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힐링 체험프로그램인 '수경재배 식물만들기'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특강에는 외부 전문강사인 김명륜 강사가 초빙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

통 방법 △액션 플랜 수립 등 참여식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시는 이날 교육에 이어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인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신규 공무원은 "이번 인권 교육을 통해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필요한 자세와 관계 형성 기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면서 "동료들과 함께 힐링 체험프로그램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환기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 가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약자 행복나들이'는 평소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다른 지역에 가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행복동행 이시콜 봉사단이 온두레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여수 엑스포 일일을 둘러보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요트 체험을 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이동이 힘든 장애인들이 따뜻한 봄바람을 쐬며 평소와 다른 일상을 보낼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특장 콜택시 58대와 전용 임차택시 25대, 순환버스 4대를 운행하며 전주시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올 하반기 특장 콜택시 5대를 증차하고,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총 27만여 명이 이시콜을 이용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시콜 이용객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직십자회 회원 19명은 지난 10일 성락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 기원을 위한 찰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주 인후2동 직십자회, 건강 기원 찰밥 나눔 봉사 펼쳐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직십자회(회장 박화순) 회원 19명은 지난 10일 성락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 기원을 위한 찰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직십자회 회원들은 찰밥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실 관내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동참했다.

한편 인후2동 직십자회는 평소에도 관내 환경정비 및 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이어 나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박화순 인후2동 직십자회장은 "경로당 어르신 찰밥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찰밥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봉사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진숙 인후2동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에 나선 직십자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 주민들이 내민 온정의 손길이 인후2동을 환하게 밝혀줄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도시에 자연을 심다'

전주정원문화센터, 6월 8일까지 도자기 화분 전시회 개최

전주정원문화센터는 13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도자기 화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전주정원문화센터가 시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전시회로, 앞서 진행된 도자기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이 만든 테라코타 오리 화분을 주소재로 국내 야생화와 텃밭식물, 친환경 잡곡 프레임 등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입체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도자기 화분 전시회는 무료

로 개방되며, 밤에도 감상할 수 있는 달빛 전시인 만큼 많은 시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정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이 정원을 통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전주정원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여자들에게는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함께 건강한 정원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